

남영희

南英姬

NAM YOUNG HIE

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(1965)

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대학 회화과 (1986)

개인전

종로갤러리, 서울 (1999) | 라인백 미술관, 독일 (2005) | 사바 현대미술센터, 일본 (2005) | “시간, 스미다”, 백송갤러리, 서울 (2016) | M갤러리, 서울 (2017)

단체전

논골 동인전, 신문회관, 서울 (1965) | 창립여류화가회전, 신세계미술관, 서울 (1973) | 국제단남아트페스티벌, 다케후시민홀, 일본(2004~2017) | “Making Their Remarks” 한국-북유럽 여성작가전, 포스코미술관, 서울 (2005) | “Paper Life 2005, DK”, 종이박물관, 덴마크 (2005) | 국제인천여성비엔날레 부부작가초대전, 인천아트센터, 인천 (2007) | 어울림전, 영은현대미술관, 광주 (2009) | 오마주-김환기전(초대), 환기미술관, 서울 (2013) | 공빠레종, 그랑파레, 파리 (2014~2017) | 하얀올림전, 산뮤지엄, 원주 (2016)

나는 한국여성이 평범한 생활 속에서 일하면서 얻어지는 평화와 위로를 얻는 과정을 한지를 통해 재현하고자 했다. 그 예술 작업 과정 자체가 행복과 안녕을 찾는 데에 있는 것이다. 나에게 한지는 일과가 끝난 후 반질고리를 꺼내 이리저리 모아두었던 아름다운 색상의 형질이고, 그 형질을 이리저리 맞춰보면서 설빔을 만드는 숭고한 일상이 한지를 통한 작업 과정에서 표현해내려 했던 것이다. 한지를 접고 황토와 먹으로 물들여서 다시 자르고 붙여서 하나의 화면을 만든다. 유화의 재질과는 다른 흔하게 구할 수 있는 황토와 먹으로 제한하여 색을 사용한다. 유년시절 속 편편이 나타나는 이미지를 최소단위로 작품 내면을 채워나간다.

삶의 고통이 어떠한지, 할머니와 어머니처럼 ‘만든다’는 것조차 잊게 하는 평화롭고 고요한 경지, 그것이 한국 여성의 평범하면서도 숭고한 삶을 기리고 승화시키려는 내 작업의 본질이다. 평범한 재료로써 평범한 한국 여성 정서를 만든다. 나의 시대에 흔했던 재료인 한지를 지지대로 선택하고, 어쩌면 지금은 사라져가는 그 그리운 세상을 생생하게 끄집어낸다. 남영희



페르소나: 응시, 118×91cm, 한지+먹+황토+아크릴, 2015



페르소나: 기다림, 131×79, 한지+먹+황토+아크릴, 2015



나들이, 187×55cm, 한지+묵+황토, 2003



페르소나1603, 95×63cm, 한지+먹+황토+아크릴, 2016



환희, 191×110cm, 한지+먹+황토+아크릴, 2016



모녀, 90×80cm, 한지+먹+황토, 2014

나들이, 185×55cm, 한지+먹+황토, 2003





바다여행, 119×91cm, 한지+먹+황토+아크릴, 2013



오누이, 120×72cm, 한지+먹+황토, 2003



생성, 162×130cm, 한지+먹+황토+아크릴, 2017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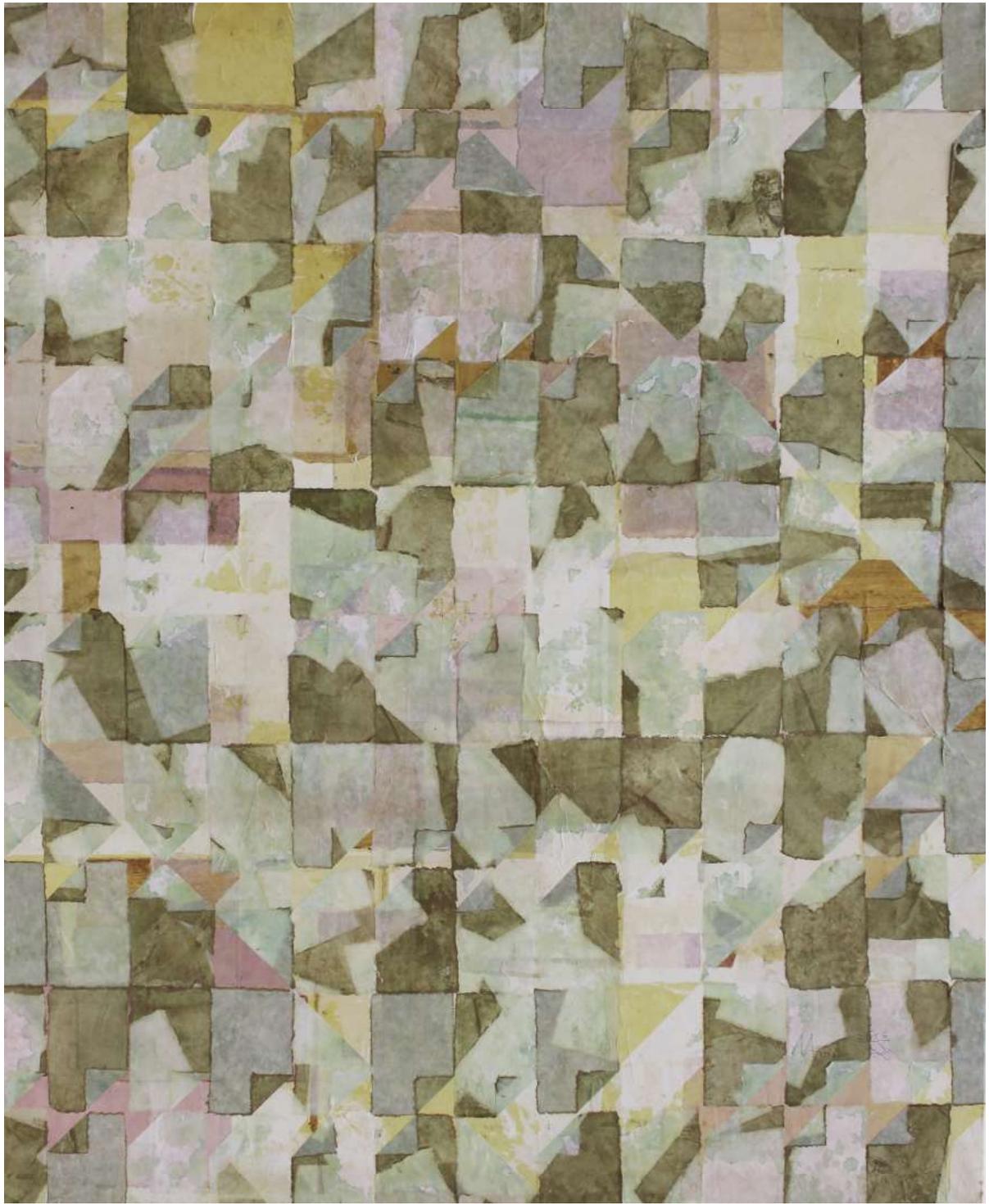
어머니의 시간, 56×56cm, 한지+먹+황토+아크릴, 2010



면의 일상, 92×83cm, 한지+먹+황토, 1999



길었던 여름, 162×130cm, 한지+먹+황토+아크릴, 2017



생성, 162×130cm, 한지+먹+황토+아크릴, 2017



자화상, 95×90cm, 한지+먹+황토, 2000



페르소나들, 162×130cm, 한지+먹+황토+아크릴, 2017